

뉴노멀시대, 제임스 스미스의 아비투스를 통한 몸의 욕망 형성 고찰 및 평가

오경환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Ph.D. in Foundations of Education

Abstract

James K.A. Smith, the most influential and popular philosopher, education practitioner, and reformed theologian for the past decade, strongly argue humans are fundamentally animals shaped by worship practices. He mentions liturgies can be formative because it shapes what we desire and what we love through the concept of Habitus. Habitus is a sort of cognitive framework that our body acquires as it acquires social experiences through the narrative of our lives. In this sense, Christian worship is a kind of habitus that leads to our imaginations and orientations our desires, and love. The body, repeated practices, involves various narrative spaces that shape the imagination, which in turn forms our desire and orientation. Therefore, Christian education should be formative, not just a Christian worldview that focuses on the information. As a result, Smith suggests various liturgical practices as an alternative to the shape of Christian character based on the concept of habitus proposed by sociologist Pierre Bourdieu. This paper sought to clarify, analyze, and even criticizes and evaluates Smith's liturgical human being, as well as how his concept of Habitus can be applied and accepted into Christian education and theology, and in some respects the uniqueness of his philosophical theory and thought.

Key Words : Habitus, homo Liturgicus, james smith, desire formation, habit formation, discipleship

I. 시작하는 글

좋은 생각을 가진 나쁜 사람은 가능할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에 모순적인 유형의 사람을 경험해 봤을 것이며, 자기 자신조차도 정직하게 대면해 보면 신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음을 인지했을 것이다. 특별히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부름 받은 교회 공동체에서도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사람을 피해 갈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 정직하고 솔직하게 물어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내가 어떤 관념과 생각과 사상을 소유했는가를 넘어서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욕망하며 지향하는 가'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 전반을 형성

(formation)하고 추동하며 우리 자신의 본질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다.¹⁾ 한국 교회 내 많은 예배와 훈련 프로그램들이 각기 다양한 방식과 모습으로 전문화되고 조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행동의 간극은 매울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지고 있다.

지난 해 초부터 시작된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아래에서 인류의 일상과 습관, 지향성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교회 역시 그러한 역동적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한국 교회의 장점이자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배 및 훈련이 중단되거나 혹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고, 이제 이러한 형식은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되며 각기 생존의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인류의 역사 이래 보편적으로 제기되었던 질문인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자칫 고리타분해 보이는 주제가 다시 화두가 되었고, 또한 교회 사역자와 신학자 역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다시 천착하여 연구하고 있다. 바야흐로 기독교 세계관²⁾에 입각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관점, 이를 통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방향과 전략이 제시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대를 한국 교회가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제임스 스미스(James K.A. Smith)의 인간론 이해와 이를 통한 방향 제시 및 구체적 실천은 한국 기독교에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스미스는 칼빈대학교(Calvin College)의 철학과 교수이며 개혁주의 전통을 충실하게 따르는 신학자이자 실천가이다. 포스트모던 철학자와 사회학자들과 끊임없이 학문적으로 조우하며 학제 간 연구를 지속해 왔으며, 세속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왔다. 개혁주의 전통과 급진 정통신학, 공공 신학을 두루 섭렵했을 뿐 아니라,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 창의적이고 새로운 인간론과 문화적 전례를 위한 여러 실천적 제언을 추구해 온 학자이다. 스미스의 근대적 기획을 넘어서는 철학과 사상, 그리고 독특한 문화적 전례 및 실천적 의례가 한국 교회와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그의 실천 지향적이며 목회 지향적이고 교회 지향적인 특성과 또한 다양한 생각과 사고와 철학을 일관성 있는 논리로 대중적으로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카리스마 덕분일 것이다. 인간이 예배하는 존재(Homo Liturgicus)이자 욕망하는 존재이며 사랑하는 존재라는 예전적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끊임없이 현대 문화와 철학, 그리고 신학을 능숙하게 다루는 스미스의 역동적이고 탁월한 학문성은 뉴노멀(New Normal)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선물이며 동시에 자산이다.

지난 1세기 동안 한국의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과 신조, 그리고 교리가 적절한 방식으로 개인들에게 전달된다면 신자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변화되어 지역과 사회와 나라와 나아가 온 세계 우주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주지주의적 사고의 면모가 강했다. 역으로 사회가 혼탁하고 타락했으며 사람들의 행동이 죄 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성경적 지식이 부족하며 기독교

1) 스미스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정보(Information)의 문제가 아니라 형성(Formation)의 문제로 이해하며 형성적이지 않는 중립적 교육은 없다고 단언한다(Smith, 2016: 37).

2) 세계관에 대한 가장 적합한 최근의 정의 및 이해는 고헌과 바르톨로뮤의 공동 저서에 드러난다. “세계관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 품고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종교적 신념들과 관념이 있으며 그 신념들은 하나의 이야기로 구현된다.... 모든 기독교 공동체는 주변의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과 주변 문화에 깔린 신앙의 관계를 탐구해야 한다. 따라서 세계관 연구는 성경의 근본적 가르침, 주변 문화의 가르침, 그리고 그 두 신념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Bartholomew and Goheen, 2011: 32-33).

세계관의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스미스는 이 지점에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을 제기하며 비평 및 제언을 시도한다. 복음주의 권에서 예배와 신앙 형성을 지난 역사 동안 소홀히 해본 적이 없는데, 과연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인간의 형성 및 지향성이 변화되어지고 있는 지 솔직하게 자문 해보라고 요청한다. 스미스는 기독교 세계관을 기독교의 신념과 사상, 교리의 체계로 단순하게 정의한다면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 몸의 문제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³⁾ 그는 교육의 문제를 일차적으로는 형성으로 이해하며 기독교 교육은 예배의 실천을 그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논증한다(Smith, 2016: 22-25).⁴⁾ 지금 이 땅에서 하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고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것을 사랑하고 욕망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며,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꿈꾸며 무엇이 좋은 삶(Telos)인지에 대해 인도되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본 논문은 스미스의 인간론의 핵심 주장 및 그 근본 뿌리를 성경적으로 살펴본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을 계승하여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이며 그것이 곧 우리의 존재와 의식이라는 인간론을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논증하는 그의 주장을 깊이 있게 살펴봄과 동시에, 특별히 그가 인간 형성의 주요한 실천 감각으로 소개한 아비투스⁵⁾ 개념을 고찰 및 비평한다. 그는 기독교 세계관의 습득이 아니라 아비투스의 습득을 통한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아비투스란 우리 인간의 몸이 삶의 다양한 내러티브를 통해 사회적 경험을 습득하며 얻게 되는 일종의 틀이다. 그는 부르디외의 말을 인용하며,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것은 사회적인 몸과 삶의 방식에 대한 그 몸의 전망이 통합되어 특정한 삶의 방식으로 좋은 삶을 꿈꾸고 욕망하며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지식의 축적과 앎을 넘어서 마땅히 사랑하고 욕망해야 하는 바에 대한 것이며,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와 존재와 인식을 재구성하는 아비투스(Habitus)적 사고와 실천이다. 본 논문은 스미스의 인간론에 대해 밝히고 분석하며 비평 및 평가함과 동시에 그가 말하는 아비투스의 개념이 어떻게 기독교 교육 내에 실천적으로 적용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에 대한 함의와 의의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어떤 맥락에서 그의 이론과 사상의 독특성이 존재하며, 아비투스를 통해 예전적 인간의 형성을 기획하고자 한 그의 주장에 따른 고찰 및 비판은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한다.

II. 아비투스 기획의 출발: 근대적 인간론에 대한 비판

스미스는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며 예배하며 또한 욕망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궁극적으로 규정한다고 주장한다(Smith, 2016: 37). 근대성과 계몽주의의 세례를 받은 후기 기독교 사회

3) 스미스는 우리의 마음이 일차적으로는 욕망에 의해 그 방향이 결정되며 그 욕망은 습관을 형성하는 실천에 참여함으로 만들어진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규정하는 이유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머리로부터 발바닥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며 이루어지는 동물 때문이라는 것이다(Smith, 2016: 35).

4) 선교 신학자 마이클 프로스트와 앨런 허쉬 역시 “바른 교리(orthodoxy)에서 바른 실천(orthopraxy)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다(Forest and Hirsch, 2003: 120-121).

5) 부르디외는 개인은 태어나면서 특정한 사회적 조건에 속하게 되며 이러한 조건 속에 개인은 어떤 특정한 것을 가치있게 여기고 선호하는 성향을 습득하고 내재화하게 되며, 이러한 성향의 체계를 아비투스라고 부른다(Bourdieu, 1997: 62).

와 신학은 인간은 사고하며 생각하며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근대적 데카르트의 인간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스미스는 말한다.⁶⁾ 인간을 성경적으로 정의한다면 예배하는 인간이며, 우리는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믿고 헌신하는 자들이다. 인간은 합리성과 이성을 가지고 세상과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은 그 인간이 믿고 헌신하며 신뢰하는 종교적 피조물이라고 스미스는 인간을 정의한다(Smith, 2016: 61). 그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구별시켜 주는 것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헌신한다는 점이기 때문에 인간을 육체와 몸을 지닌 통합적 존재로 이해하는 통전적 인간론을 주장한다(Smith, 2016: 83).

스미스가 인간론의 논의를 중요한 화두로 이끌어 내는 이유는 개혁주의적 전통에서 인간론 이해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에 따른 실천과 방향이 현저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개혁주의 인간 이해에서의 인간은 본래 의로운 상태였으며 하나님의 이미지와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자들이다(Macarthur, 2017: 409). 다시 말해 인간은 하나님의 아이콘(icon)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특별한 창조물이기도 하다(Sproul, 1998: 131). 이러한 인간 본성에 관한 이해는 교육적, 철학적, 그리고 신학적 방향성에 대해 주요한 의의를 제공해 준다(Berkouwer, 1962: 9). 종교 개혁자 칼빈 역시 이러한 인간론에 기반을 두어 교육의 최종적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하고 구속하며 그것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정의한다(황성철, 2002: 200).

결국 온전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드러낼 수 있다. 교부 어거스틴은 “인간은 삶의 중심을 진, 선, 미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맞출 때 번영을 이루고 진심으로 행복하다. 창조된 모든 것은 사랑을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하고 온전히 그리고 진심으로 그것들을 즐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즐겨야 한다”(Augustine, 1993: 13.10)고 말한다. 텔로스의 지향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질서이며, 그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풍성하고 누릴 때 번영하는 삶으로 충만해 질 수 있다. 스미스는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사랑과 욕망이며, 이것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궁극적 지향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이 지향은 언제나 지식과 사상보다 우선하는 선인지적 지향성이며, 동시에 우리의 사랑이나 욕망이 특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식은 우리의 사랑을 형성하고 빚어내는 다양한 실천과 예전들을 통해서이다(Smith, 2016: 115). 스미스는 근대적 인간론의 성경적인 통합적 인간론을 주장하기 위해 어거스틴의 전통과 대화하며 해석학적인 작업을 시도한다. 어거스틴은 인격이 물질적임을 인정하며, 몸과 피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됨은 인간 피조물의 핵심적 특징이라고 주장했다. 스미스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정서적 존재이라고 주장하며 인간의 중심은 지성이 아닌 마음, 그 자체라고 말한다(Smith, 2008: 202).

스미스는 기독교 세계관을 기독교적 신념과 교리, 명제의 모음집이라고 이해하며, 이것이 주입될 경우 행동까지 바꿀 수 있다는 신념 자체는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실책이라고 말한다(Samples, 2007: 15). 세계관에 대한 접근이나 지성적 연구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6) 스미스는 데카르트의 인간론의 특징은 개인이라는 인간상이며 또한 객관적인 세속 이성과 자율성이라고 파악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자율성과 개인주의, 합리주의적 인간의 이해를 기독교 교회가 받아들였다고 그의 책 『누가 포스트모더니즘을 두려워하는가?』, (Smith, 2009: 15-17)에서 비판한다.

부적합(inappropriate)하다는 것이다.⁷⁾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은 기독교 교육이 형성과 실천의 기획이라는 인간의 성경적 핵심 논점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⁸⁾ 우리의 교육이 욕망과 성향이 형성되는 방식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식과 행동은 얼마든지 모순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Smith, 2018a: 38-40). 즉, 그는 기독교 세계관은 주지주의적 인간 이해에 근거한 것으로 다시 재조정되어야 하며, 기독교 교육의 통합적 모델 형성을 위해 욕망과 지향, 사랑의 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여야 한다는 것이다(Smith, 2018a: 46). 욕망의 교육이 습관과 감정, 상상력을 빚어내기 때문에 다양한 실천들을 통해 온전한 지향성인 텔로스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⁹⁾

이 지점에서 스미스는 제자도(discipleship)의 지향점을 바꿔야 한다고 요청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예전 또는 전례(Liturgy)를 기독교적 실천 방식으로 제안한다. 제자도는 재형성의 문제이며, 그리스도인의 형성의 근본 방식은 정서적이고 에로스적이며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는 것에 관한 문제라고 말한다(Smith, 2018b: 39). 제자도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재정렬(re-oriented)하는 것인데, 이는 우리의 사랑과 지향과 욕망을 참된 진리이신 예수에게로 향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바람과 사랑과 갈망을 지속적으로 원하시기 때문이다 (Smith, 2018b: 14). 톰 라이트(Wright, 2012: 25) 역시 우리가 현재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을 통해서만 온전히 가능하다고 말한다.

현재 제자도의 주요한 양식으로 되어 있는 기독교 교육 및 세계관 형성에서 신념과 실천의 관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전, 전례라고 스미스는 주장한다. 월터스토프(McKim, 1998: 290-291) 역시 개혁주의의 정수는 예배이며 “개혁자들은 예전 그 자체를 하나님의 행동과 그 행동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한다. 스미스에게 예전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 정체성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루터(Luther, 2017: 44) 역시 인간의 마음이 집착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상이라고 보았고, 칼빈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지속적으로 우상(Idol)을 만들어 내는 우상 공장과 같다”고 말했다(Calvin, 1960: 108). 우리가 예배하는 바가 곧 우리의 사랑하는 지향을 보여주기에, 그것이 우리를 형성할 뿐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또한 규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무엇이든 예배하는 존재이며, 핵심은 무엇을 예배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소비와 돈, 성과 중독, 심지어 좋다고 여겨지는 가족과 일, 성취, 성공 역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¹⁰⁾ 팀 켈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7) 스미스는 이 지점에서 기독교의 고도화된 지성화를 비판하는데 지성에 대한 탐구 및 연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과 실천을 분리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Smith, 2016: 335).

8) 월터스토프 역시 신칼빈주의 교육자들의 기독교적 사고는 기독교적 삶으로 연결된다는 가정은 매우 순진한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지성적 습득뿐 아니라 기독교적 삶을 형성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Wolterstorff, 2002: 272).

9) 스미스가 자주 인용하는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인간의 궁극적 지향성이 되어야 할 “참된 사랑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기를 열망하며, 다른 것을 바라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Reeves, 2018: 118).

10) 스미스는 그의 책 여러 곳에서 현대 문화의 주요한 우상으로 ‘소비주의’를 지목한다. 밀러는 나아가서 미국 기독교를 사람들의 소비문화 중 하나의 요소가 되었다고 비판한다. 더 나은 연구는 Vincent J. Miller(2004), “*Consuming Religion: Christian Faith and Practice in a Consumer Culture*”(New York: Continuum). 참고하라.

있는 것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주장한다(Keller, 2017: 22-23). 그런 면에서 개혁주의와 개신교 예배는 다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스미스(Smith, 2018b: 127)는 성경 이야기(narrative)가 중심이 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는 형성하는 힘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를 이미 형성하고 빚어 놓은 세속 예전에 대항할 수 있는 실천이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논증한다.¹¹⁾ 오늘날 많은 예배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형성과 실천이 미진한 이유는 예배 자체가 지나치게 세속적인 경향과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예배를 통한 ‘텔로스’, 그리고 그 텔로스를 통한 지향과 형성의 성찰은 필요하다.¹²⁾ 왜냐하면 결국 우리 삶에서 무엇을 성품과 선한 것으로 삼을 지는 텔로스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습관이 특정한 텔로스를 지향하는 어떠한 성향이라면, 어떤 습관이 덕인지 악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먼저 텔로스를 결정해야 한다고 스미스는 말한다(Smith, 2018b: 142).

스미스는 좋은 예전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삶에 대한 전망, 텔로스를 상상하게 하며 궁극적 충성을 이끌어 낸다고 주장한다(Smith, 2016: 128-129). 그는 예전의 의미를 폭넓게 이해할 것을 요청하는데, 이는 인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의례와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강조하기 때문이다.¹³⁾ 인간은 그것이 세속적이든 종교적이든 관계없이 어떤 의례와 실천에 의해 끊임없이 삶의 지향과 욕망이 형성되고 있다.¹⁴⁾ 특히 그리스도인은 세속 사회 속에서 다양한 예전을 학습하면서 그곳에 추동되고 이끌리고 있는데, 스미스는 이를 “악마는 가장 좋은 예전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한다. 이에 적실한 대응 방안은 예전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이야기, 즉 하나님 나라의 전망을 소망하고 상상하며, 이것이 “우리의 뺏속으로 스며들어 우리의 지각을 위한 배경, 우리의 성향을 위한 근거, 세상 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위한 기초가 되는 예전과 의례, 훈련을 다시 활성화하고 갱신하는 것”이라고 스미스는 주장한다(Smith, 2018a: 86).¹⁵⁾ 그런 면에서 스미스는 부르디외가 시도했던 아비투스적 기획을 예전적 인간론을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며, 학제 간 연구를 통해 분석 및 적용을 시도한다. 또한 아비투스를 통해 인간의 예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습되며 지각되고 실천적인 지향성이 형성되는 지를 보여준다.

11) 스미스는 인간은 자신의 성품의 형성을 빚은 이야기, 우리의 삶에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좋은 삶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자기 자신이 흡수한 이야기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다(Smith, 2018a: 74). 또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예배와 통치 방식, 도덕성을 형성하며 그것이 형성되는 사람들의 습관들을 통해 구현된다(Hauerwas, 2003: 373).

12) 개혁주의와 개신교 예배의 정수는 바로 예배이며 특히 예배에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강조라고 윌터스토프는 말한다(Wolterstorff, 2002: 287). 또한 인간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장인 예배라고 칼빈은 주장했다(George, 1990: 234).

13) 찰스 테일러 또한 “몸으로 하는 의례와 예배와 실천의 형태들과 관계없는 것으로 우리의 종교적 삶을 변형시켜 우리의 종교적 삶은 점점 더 ‘머리 안에’ 머물게 된다”고 지적한다(Taylor, 2007: 613).

14) 스미스에게 있어서 예전은 포스트 모던 시대의 교회의 출구 전략이기도 하다. 탈근대 교회가 고대 교회보다 더 잘할 수 없다고 단언하며 결국 탈근대 세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전통 회복이며 이에 따라 제자를 기르는 효과적 방법은 예전이라고 주장한다.(Smith, 2008: 41).

15) 고힌과 바르톨로뮤는 인간 공동체는 인간 삶의 방향과 틀을 제시하는 어떤 포괄적 이야기들로 살아간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경고하기를 현대의 지배적 문화가 성경이 우리를 형성하는 대신 우리 삶에 전망과 상상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성경 이야기가 토대가 되든지, 세속 서구 세계가 우리 삶의 토대를 잠식하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이다(Bartholomew and Goheen, 2009: 279). 매킨타이어 또한 『덕의 상실, After Virtue』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답하려면, 먼저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MacIntyre, 1984: 216).

III. 욕망과 사랑의 텔로스적 기획 : 아비투스를 통한 실천과 몸의 습관 형성

인간은 욕망하고 사랑하는 존재이며, 지성보다 앞선 상상과 감정과 지각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구성하며 학습되고 실천되며, 어떤 특정한 지향을 향해 나간다는 것이 스미스 인간론의 핵심이다. 스미스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추구하고 지향해야 할 목적(telos)을 향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습관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덕이란 좋은 도덕적 습관이며, 이것은 지적인 것보다 정서적으로 습득하게 된다고 본다. 다시 말해, 덕을 교육하는 것은 일종의 형성이며 특정한 성향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한다(Smith, 2018b: 36).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는 성향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의례를 통해 우리 내면 깊이 성품에 새겨지며, 이를 통해 어떠한 성향이 자리 잡는다(Smith, 2018b: 38).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결국 많은 실천의 실천이기 때문”이다(Dykstra, 1999: 67).

스미스는 예전적 인간론을 제시하기 위해 부르디외가 추진한 기획을 차용한다. 부르디외가 제안한 “실천으로서의 실천 이론”의 의의는 의미 있는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습관화된 성향의 중요성을 파악해 낸 것이다. 아비투스는 일종의 양립 가능성인데, 인간은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는 사람도 아니며 외부적 힘에 의해 강제되어 형성되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지각과 행동은 모두 제약되지만, 동시에 자발적이고 또한 즉흥적이며 자유로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스미스(Smith, 2018a: 154-155)는 이 지점에서 기독교 교육과 형성의 목적을 지적으로 고도화된 ‘세계관’의 습득이 아닌 기독교적 아비투스의 습득으로 이해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세상을 구성하는 법을 배우지만, 동시에 자신의 세상을 스스로 구성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각하는 나는 언제나 우리이며, 이것은 공동체 내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므로 주목해야 할 것은 결국 믿음과 몸의 결합이다.

사회학자로서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 1930-2002)의 공헌은 그가 다른 고전 사회학자의 이론을 종합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이다. 그는 현대 사회과학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 전반에 걸쳐 학문적 영향력이 매우 큰 학자이며, 우리나라에도 그의 많은 책이 번역되었고 ‘구별짓기’, ‘아비투스’를 비롯한 여러 주요 개념들이 소개되었다. 그의 학문적 기획은 기존 주류 이론들의 논점과 약점을 파고들어 새로운 대안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었는데, 워낙 방대하여 시기에 따라 상이한 때로는 모순되어 보이는 주장들 때문에 명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스미스 역시 그의 이론 전체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부르디외의 개념 중 ‘아비투스’를 예전적 인간론에 접목시키기 위해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부르디외는 개인의 행동은 주관적 의지를 통해 구체화되지만 단순히 이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와 역사 속의 맥락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르트르(Jean-Paul Sartre)로 대표되는 실존주의와 레비-스트로스(Claude Levi-Strauss)의 구조주의 철학으로 대표되는 철학을 비판하며 종합하고자 한 시도였다.¹⁶⁾ 그는 개인 이성 능력이 중립적이

16) 부르디외는 사회적 주체의 행위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첫째로 타자의 전략에 따라 개인행동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는 시간 요인이 작용한다는 점이다. 홍성민(2011: 36)은 이 개념이 “인간사회에서 전개되는 행위는 마치 게임의 논리와 유사하며, 여기에는 미래와 과거의 시간적

거나 절대적이지 않고, 사회적 규범성 또한 보편적이지 않으며, 얼마든지 사회적 논리에 따라 형성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홍성민, 2011: 10-11). 이에 부르디외는 아비투스 개념이 사회구조와 행위 사이의 이분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개념이라고 주장했다(Bourdieu, 2001: 206). 이 개념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사회와 개인, 객관과 주관, 사회 체계와 개인 주체의 자유의지를 관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Matton and Grenfell, 2008: 49-52). 스미스가 부르디외의 아비투스를 포착한 장면 역시 부르디외의 비판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전통적으로 근대 이후 개인이 행위 주체로써의 역할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점이다.¹⁷⁾ 부르디외는 인간은 주체인 나를 통해 생각과 사고, 그리고 행위로 존재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습관과 성향, 버릇들에 의해 구성되며 행동된다고 설명한다(김동일, 2016: 9).

다시 말해 아비투스는 우리의 세상을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하는 성향이다.¹⁸⁾ 부르디외는 아비투스를 “과거의 모든 경험을 통합하면서 매순간 인식, 평가, 행위의 도식으로 기능하는 지속적이고 이전 가능한 성향들의 체계”로 정의했다(Bourdieu, 2007: 82). 주지주의와는 반대로 우리의 형성은 실천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아비투스는 언제나 나보다 더 크며 개인적인 동시에 또한 사회적이다.(Smith, 2018a: 149-150). 주체로서의 개인은 아비투스의 담지자임과 동시에 개인의 사고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계급, 집단과 사회와의 관계 속에 상대적으로 위치하고 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행위를 낳는 것은 바로 이 아비투스”이다(김동일, 2016: 10).¹⁹⁾

아비투스는 본래 아리스토텔레스가 ‘습관’으로 지목하고 이를 에토스(ethos)와 헥시스(hexis)의 두 차원으로 이해했던 개념이다. 에토스가 반복된 행동을 통한 무의식적 행위라면, 헥시스는 어떤 일정한 도덕적인 성향(virtue)과 관련된 개념이다. 데카르트의 근대 인간론 주창 이후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통해 덕을 개발하고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철학계의 주요한 사조였는데, 부르디외와 스미스는 이 인간론 자체를 비판한다. 부르디외는 인간의 행위는 과거의 전통, 사회의 관습과 문화, 그리고 이성만으로 파악 불가능한 감정과 상상력 같은 요인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비투스의 개념이 필요함을 역설한다(홍성민, 2004: 34-35). 결국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되는 삶의 습관을 성향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아비투스의 이 성향은 개인을 통한 세계에 대한 구성 및 이해를 가능케 하며 동시에 개인의 환경 속에 개인과 타자, 집단, 사회와의 관계를 이해하며 조율한다(김동일, 2016: 6-7).

흐름이 독특하게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아비투스 개념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이다”고 말한다.

17) 부르디외는 개인의 행위를 주체적, 합리적 판단의 결과로 보는 공리주의적 관점 및 개인을 사회의 논리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위하는 존재로 이해한 결정론적 구조주의는 두 가지 다 인간의 근본 성향과 사회와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철학이다. 개인의 행동에는 사회구조의 영향 아래 누적되어 온 과거의 경험이 전 인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서로 미치고 있다는 것이 부르디외의 주장이며 그는 자신의 학문적 기획을 ‘발생적 구조주의’, ‘구성주의적 구조주의’라고 하였다”(Bourdieu and Wacquant, 2015: 52).

18) 부르디외는 초기에 아비투스의 인지적 측면에 집중했으나 나중에는 육체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포함시켰으며 사회화된 형태의 실천 행위를 강조하며 실천의 창의성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아비투스의 개념 범위를 점차 확장해 나갔다(Matton and Grenfell, 2008: 55).

19) 부르디외는 아비투스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개인은 자신의 성장과 교육 과정 속에서 습득하고 형성한 아비투스의 한계 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그는 강조한다(Bourdieu and Wacquant, 2015: 216-217).

부르디외(Bourdieu, 1982: 53)에 따르면 아비투스(habitus)는 지속 가능하고 발전 가능한 능력이며, 이것은 어떠한 성향의 체계라고 이해할 수 있다. 아비투스는 ‘구조화하는(structuring)’ 구조이자 이미 ‘구조화된(structured)’ 구조인데, 그는 두 가지를 지적한다. 첫 번째는 ‘실체(reality)’로써 객관적 구조이며, 또 다른 하나는 실천의 논리(logic of practice)이다. 두 번째 구조가 보다 중요한데 이 구조는 실체의 구조를 실제적으로 작동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구불변하지 않으며 새로운 실천이 가능하고 그 실천을 가능케 하는 실체들의 변화에 의해 다시 재구성될 수 있다(김동일, 2016: 3-4). 또한 아비투스 개념에서 육체의 개념이 중요한데, 실체들의 변화가 재구성될 때 그 영향을 전달하는 매개체는 결국 육체이기 때문이며, 동시에 사회적으로 범주화된 가치가 육체에 각인된 것이 아비투스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부르디외는 메를로 폰티(Maurice Merleau-Ponty)의 ‘육체의 철학’에 크게 빚지고 있는데 『지각의 현상학』에서 메를로 폰티는 개인의 지각은 의식을 통해 실현되기 보단 육체적 관습을 통해 이뤄지며, 이러한 육체적 도식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한다고 말한다(홍성민, 2011: 36-37).

부르디외는 아비투스 용어를 분석하며 ‘실천 감각’과 ‘실천 논리’라는 두 가지 중요한 체험적 용어를 사용하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서 스미스는 예전적 인간론을 위한 종합 및 적용을 시도한다. 실천 감각은 “특정한 방식으로 세상을 구성하는, 공동체가 공유하는 개연성의 구조를 흡수하는 것-단지 특정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반응을 촉구하며 특정한 종류의 기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환경으로서의 세상을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Bourdieu, 1992: 68). 이러한 감각적이고 지각적인 실천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논리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신체적 훈련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수행되는 논리라고 이해할 수 있다(Bourdieu, 1992: 89). 부르디외는 ‘실천 감각’은 각각 개인들이 사회적 행위를 실행하는 것이며, 사회의 구성원들이 각기 자기와 세계와 사회와의 관계 속에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신체에 각인된 이러한 성향을 갖췄기 때문이라 본다(Bourdieu, 1992: 66). 스미스는 부르디외의 실천 감각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며 적용한다. “실천 감각은 일종의 감각이며, 세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실천 감각은 특정한 방식으로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몸의 성향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믿음’이다”(Smith, 2018a: 158-159). 결국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서 실천 감각을 통해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며 좋은 삶에 대한 전망을 꿈꾸며 몸의 성향이 변화될 때 믿음은 온전히 발현되는 것이다.

사실 부르디외의 핵심 질문은 한 사회의 불평등과 지배 관계의 지속성에 관한 문제였다. 그는 이것이 문화적 수단에 의해 암묵적으로 유지된다고 파악했다. 특별히 학교 교육제도가 상징 폭력을 통해 이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문화적 재생산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폭로한다. 다차원적 사회적 공간에서 교육은 하나의 주요한 장(champ)으로 기능하는데, 아비투스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장의 존재를 호명한다는 것이다. 장은 자율적 공간임과 동시에 실천이 객관적 구조와 만나 작용하는 곳이다. 부르디외는 “장은 위치들 사이의, 객관적 관계들의 연결망”이라고 설명한다(Bourdieu, 1996: 231). 다시 말해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계는 수많은 장들이 서로 상호 작용하고 있는 다차원적 공간이며, 장은 서로 독립적이지만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며 개인 행위자는 동시에 여러 장들에 소속 가능하다. 이 장은 “세력 관계의 진원지이자 그것을 변형시키려는

투쟁의 진원지이며, 따라서 끊임없는 변화의 진원지이다”(Bourdieu and Wacquant, 2015: 183). 그러므로 그는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은 개인을 넘어서는 장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은 결국 장 내에 존재하며 위치하고 그 관계 속에서 행동하기 때문이다(Bourdieu and Wacquant, 2015: 52). 아비투스 역시 장과의 관계 속에 작동하며 이것은 두 구조 사이의 실천 행위를 이해하는데 핵심이 된다.

부르디외가 한 사회가 지속적인 지배 관계를 공고히 하고 지속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이 아비투스를 가능케 하는 사회적 기제를 발견한다. 바로 그것은 교육 체계, 즉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의 기능이었다. 사회화 과정은 겪으며 모든 개인은 교육 과정을 경험하며, 이 때 이른바 2차 아비투스가 형성된다고 그는 설명한다(홍성민, 2011: 38). 오랜 시간 끊임없는 반복적 학습과 실천과 교육을 통해 이것을 자연스런 성향과 습관으로 내면화시킨 아비투스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Bourdieu, 2000: 68-71). 스미스 역시 아비투스의 특징을 분석하고 적용하며, 끊임없는 반복적 실천과 학습, 의례를 통해 어떤 특정한 성향으로 이끄는 습관을 몸과 육체에 내면화시킬 것을 강조했다. 스미스는 아비투스 자체가 가진 욕망과 습관을 형성하는 힘과 기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독교 교육 내의 형성으로 적절히 이해하여 적용한다면 주지주의를 넘어서는 예전적 인간론의 실천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IV. 제임스 스미스의 아비투스적 전략에 담긴 함의와 시사성

스미스는 주류 문화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호명하신 부름과 모순되기에 교회는 대안적이고 대항적 질서를 가져오는 훈육(discipline)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진리에 대한 탐구와 연구는 곧 실천을 위함이며, 온전하고 올바른 예전만이 우리를 형성해 가는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말한다(Smith, 2009: 159-161). 예전적인 형성은 우리의 상상력을 빚어낼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구성하고 이해하며 어떤 지향과 사랑과 욕망을 가질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아비투스의 개념처럼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습관과 몸의 형태로 인해 어딘가로 향해 왔으며, 향하고 있고, 결국 향할 것이다. 스미스(Smith, 2018a: 239-240)는 “우리가 흡수한 아비투스의 관성에 의해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목적을 향해 행동하는 성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이 더욱 중요하며 예전에서는 우리의 본질, 정체성, 상상력, 궁극적 열망과 지향에 관한 본성을 우리 몸에 체화하고 육화함으로 아비투스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질서대로 살기 위해 성경 이야기에 천착함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사회적 실천을 이뤄 가는 방식이 바로 예전이라는 것이다.

부르디외가 말했던 아비투스적 실천은 우리 삶에 무의식적으로 사회와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왔으며 하나의 실천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세속 예전은 우리의 상상력과 관심, 그리고 충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데, 이것 역시 아비투스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인과 경쟁한다. 이 지점에서 스미스는 다시 주지주의에 대한 비판을 두 가지로 지적한다(Smith, 2018a: 241-242). 첫째로는 세상의 예전을 쫓는 죄의 방식이 모든 의식적, 의도적 선택의 결과가 아니며, 형성과

습관의 아비투스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보다 중요한데 주의주의적 설명은 우리 안에 불의와 죄악된 모습을 향하는 성향과 이것을 만들어 내는 사회적 역학 관계 및 구조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의 죄에 대한 강조만 할뿐 구조 속에서 이뤄지고 사회와 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는 세속 예전의 아비투스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세상의 질서와 세속 예전에 굴복하고 잠식하여 버린 육화되고 체화된 우리의 습관과 몸의 양식은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서 아비투스화 되었고 경쟁과 소비, 돈과 섹스와 권력이 ‘좋은 이야기’로 우리의 삶의 전체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선한 세상을 창조했으며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을 구속하고 다스리며 또한 다시 오실 그 소망과 살롬의 나라의 이야기에서 벗어나 또 다른 텔로스를 지향하도록 우리의 몸이 이끌리는 것이다. 스미스는 이 지점에서 예전적 형성이 결국 대안인 이유는 예전을 통해 우리 안에 “체현된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며 육화된 의미의 역학을 동원하고, 우리 안에 ‘좋은 삶’이 어떤 모습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심어 넣어 위해 우리의 미학적 감각을 겨냥해 작동하기 때문에”(Smith, 2018b: 176) 중요하다고 말한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인 동시에 훈련이며, 이것이 우리의 습관과 갈망을 형성한다. 온전한 예배는 제자도와 성화의 핵심이라고 스미스는 설명한다(Smith, 2011: 111). 예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이며 만남이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좋은 삶에 대한 전망과 상상력을 심어 줄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된 삶의 습관과 방식과 성향을 재조정하고 재구성하게 한다. 예전을 통해 인간이 경험하는 거듭남과 성화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한 예배는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며 역동적 일하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일하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역사로 인해 가능하며, 인간은 그 일에 참여자로서 참여하여 실천을 실천한다(Boulton, 2011: 23). 기독교 예배의 실천은 우리로 하여금 대안적 질서와 대항하는 이야기 속의 서사로 이끈다. 지식과 교훈을 주입하는 방식으로는 세상의 경쟁과 질서에 맞설 수 없으며, 대안적 형성을 위해서는 우리 지성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 다시 말해 오감과 지각과 감정을 사로잡는 대항 수단이 필요하다고 스미스는 주장한다(Smith, 2018a: 278).

스미스에게 예배의 형식과 양식은 부르디외의 실천 논리이다. 그는 예배 자체가 서사적 일관성이 있다고 말한다. 그에게 “기독교 예배의 서사적 흐름은 ‘의미를 갖는’ 방식이며, 우리가 실천의 암시적인 서사적 논리에 몰입함으로써 기독교 이야기의 ‘실천 감각’이 우리의 상상력에 스며들어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배경, 즉 우리의 아비투스를 통제하는 그 이야기가 일부가 된다”(Smith, 2018a: 290)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예배의 미학과 서사적 논리 및 흐름, 이야기를 통해 인간은 무엇으로 배울 수 없는 아비투스를 습득하게 된다. 스미스는 예배는 인간 이해의 미학에 집중해야 할 뿐 아니라 의도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살롬에 대한 다가올 소망의 나라에 대한 텔로스를 흡수할 뿐 아니라 이야기가 우리의 몸을 미학적 차원에서 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넘어서서 새로운 지각과 감정, 상상력, 즉 변화된 ‘실천 감각’을 습득하고 훈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기독교 제자도는 세계관 습득이 아니라 감수성의 습관화에 대한 문제이며, 세상을 바르게 지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조화를 이루는 성향과 기질 습득은 예배의 주요한 열매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Smith, 2018a: 301-302). 무엇보다 예배가 형성적이라면 중요한 특징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비투스가 무의식

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상상력을 사로잡고 형성하며 이끄는 어떤 힘이라는 것을 세속 질서는 잘 파악하고 있다. 근대의 인간 이해를 넘어서서 온전한 예전적 인간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예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세속에서 우리의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지각과 습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며 지향성을 바꾸며 진리를 실천하고 행하는 열매를 만들어 내야 한다.

예배는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할 뿐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구속 범위는 온 세계 모든 영역을 포함하며 포괄한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1880년 자유 대학교 설립 연설에서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제시하며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속해 있으며 이 땅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것이라고 선포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주적이며 광범위하며 개인과 사회와 모든 영역까지 제한 없이 미치며, 우리 영혼 뿐 아니라 탄식하는 창조 세계 전반에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롬 8:22). 부르디외는 아비투스라는 사회와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방향이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또한 각 장들의 관계 속에서 개인은 그 영향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 면에서 스미스 역시 예전이 우리의 아비투스를 형성하는 주요한 기제라면, 이것 역시 모든 인간 상호 작용 속에 존재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공동체 전체를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이해했다. 그러므로 그에게 아비투스적 습득은 공동체적이어야 하며, 공동체적인 몸의 체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새롭게 다가올 질서에 대한 소망과 상상력을 함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미스(Smith, 2011:92-93)는 복음은 처음부터 사회적이었고 정치적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공동체로 부르셨고 한 백성을 구원하셨으며,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단위는 공동체, 즉 한 백성(People)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함께 아비투스를 학습하고 체화하며 습관화하여 특정한 방향, 즉 선한 텔로스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제자도의 핵심 원리 중 하나가 되어야 하며 이것이 가진 형성의 힘을 인정하고 현실 속에 실천해야 한다.

V. 제임스 스미스의 아비투스 기획에 대한 비평적 평가 및 고찰

스미스는 자신의 논의에서 근대적 인간론에 근거한 주지주의적 교육 모델을 넘어서 어거스틴의 인간론, 즉 인간은 사랑하고 욕망하는 존재이며 그것이 궁극적 정체성을 규정한다는 총체적인 성경적 인간론을 제시했다. 그는 개혁주의의 토대와 전통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면서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정합성과 논리성, 정밀성을 넘어서서 인간의 몸체에 대한 이해, 지각과 지성의 관계, 몸과 머리의 관계, 그리고 아비투스와 습관을 탁월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별히 개혁 교회는 지나치게 지성적 측면을 강조하여 지식과 지성에 대해서는 탐구 및 연구하였지만 몸의 문제, 즉 육체의 문제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저함이 많이 있었고 그에 관한 연구 또한 미진한 점이 사실이다. 그러나 스미스는 정확하고 적실하게 개혁주의가 보완해야 할 점들을 파악했고 그에 대한 연구를 지금까지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오순절식 신앙 배경부터 성공회와 개혁 교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앙적 체험과 경험을 한 스미스에게 신학의 출발 배경과 궁극적 목적은 언제나 교회를 위한(for the Church) 것이었다. 그는 교회를 위한 철학자, 신학자, 교육학자, 실천가라고 불릴 수 있는데, 이 모든 부분에서 그의 신학과 철학의 기획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 행위와 신념, 지성 사이의 모순과 이분법적 접근을 극복하기 위해 습관이라는 개념인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을 차용하여 예전적 인간론을 주장했으며, 인간의 상상력과 미적 감각 및 이해,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습관이 온전하고 바른 비전과 지향성을 가진 텔로스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를 향한 실천적인 스미스의 기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끊임없이 사회와 문화를 분석하고 학제 간 연구를 통해 개혁주의 유산에 근거한 탁월한 결과물을 적절한 시점에 세상과 교회를 위해 제공하기 때문이다.

다만 스미스의 전체 논의 중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먼저 스미스가 기독교 세계관을 주의주지적으로 이해한 것과 지성적인 면보다는 감각적이고 지각적인 육체에 지나치게 집중한 것은 다소 비약이 있다. 그는 기독교 세계관의 모습이 지나치게 지성적이고 논리적이며 분석적인 형태를 띠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학습 태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기독교 세계관이 사회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의례의 힘과 습관의 힘을 간과한 것에 대해 비판적이었는데, 인간이 육체와 영혼, 마음과 지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합적인 이해에 대해 기독교 세계관은 영혼과 지성의 문제에만 지나치게 천착한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미스는 기독교 세계관이 가진 이야기(narrative)의 모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독교 세계관은 도식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세상에 대한 이야기 및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의 내러티브 방식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과 궁극적 존재를 설명하는 힘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예전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형성되는 기독교 세계관의 영향력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고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이해했다.

나아가 스미스는 아비투스의 개념을 가지고 예전적 인간론을 설명하는데, 그의 부르디외의 철학 이론에 관한 이해는 단편적이다. 부르디외의 철학이 워낙 방대한 것이 한 몫을 하지만 스미스는 아비투스 이론 한 가지를 차용하기 위해 아비투스의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것이 어떻게 사회 분석적 도구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아비투스와 연관되어 부르디외가 중요하게 사용했던 상징적 폭력, 혹은 장에 대한 개념이나 이해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아비투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함의와 논의 자체에 대한 이해를 그의 예전적 인간론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으로 사용했을 지라도 본래 부르디외가 추구했던 학문적 기획인 사회 지배 계급의 지속적인 지배를 폭로하며, 그것이 은밀한 상징적 폭력으로 추동되고 있으며, 여전히 장들과의 대결이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은 스미스의 글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아비투스가 사회적으로 학습되며 계급 질서를 공고히 하는 질서로 은폐되어 쓰이기도 한다면 오히려 그가 교회 공동체 분석을 통해 한 단계 더 논의를 진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 교회와 공동체가 사회적, 역사적으로 습득하고 내면화한 무엇에 대한 인식과 대면을 통해 대안적, 대항적 질서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스미스는 예전적 인간론을 통해 예배를 실천하고 그 의례를 통해 상상하며 지각하고

내재화된 인간상을 꿈꾼다. 그의 기획은 초대 교회의 전통, 즉 고대의 전통을 충실히 따라가면 면에서의 방향성은 신선하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가 말하는 의례의 형식과 모범이 무엇인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제시가 미흡하다. 더 큰 문제는 현대의 모든 교회 예배가 천편일률적이라는 점이다.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대부분의 교회는 그 예배 형식과 모범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예배를 하나의 가장 중요한 제자도의 실천 양식으로 이해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먼저 예전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며 그것 자체가 목적이기에 다른 모든 의미를 넘어서는데, 예전이 기독교 교육과 실천의 양식과 도구로 도구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물론 스미스는 예배 자체의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과의 만남 및 역사를 우선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하나의 어떤 결과와 목적을 도출하려 할 경우 예배의 목적과 방향의 우선순위가 전도되는 예상치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더 심각한 질문은 기독교 교육과 형성의 문제에서의 돌파구를 예전으로 삼았는데, 예전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는 세속 예전과 기독교 예전을 비교 및 분석하며 세속적 질서에 대항하고 대안적 질서를 만들어 가는 형성을 기독교 예배를 통해 실천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분석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행위와 실천, 의식 및 무의식을 포함하는 다양한 삶의 양식과 영역이 예전, 의례, 예배라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다시 ‘예배’가 되어 버리는 순환론적이고 환원론적인 논리로 귀결된다. 스미스가 인간의 몸이 지각과 상상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고 이해한 반면, 예배에서 더 나아가 창의적이고 상상력 있는 기독교적 활동과 모형과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비판으로 예전을 제시했지만 결국 이 또한 기독교 세계관의 지성적 측면을 감성적이고 상상력과 지각이 풍성한 몸의 문제를 다루는 예전으로 옮겨간 것은 아닌 지 의문을 품게 된다.

마지막으로 스미스가 주장한 아비투스 개념을 기존의 한국 교회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아비투스, 즉 보수화된 보수성과 유교화된 기독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는 지, 어디 출신인 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 역시 사회적 가치가 무의적으로 습득되어 있는 것이며, 이러한 질문을 통해 그 사람의 존재와 정체성을 규정하려고 하는 아비투스일 것이다. 만인제사장의 개혁주의적 원리가 교회 내에 다시금 계급적 신앙의 구도로 구체화되어 발현되었고 고착화된 것, 신앙을 좋은 전망의 텔로스를 가진 방향이나 목적이 아니라 새벽기도와 십일조, 주일 성수의 문제로 단편화하여 열심의 문제로 치환한 것, 그리고 구체적인 삶 속에 일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상상할 지에 대한 매력적이지 못한 텔로스는 한국 교회가 극복해야 할, 우리 안에 이미 내재화되고 육화된 아비투스라고 볼 수 있다. 한국 기독교 내에 사회적 관계 속에 이미 육화되고 내재화된 몸의 욕망과 습관을 분석 및 비판함으로써 새로운 대안적이고 대항적인 텔로스를 상상하게 하는 기독교적 아비투스 형성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시점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중요한 질문을 맞닥뜨리게 한다.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지난 해 초부터 대부분의 교회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으며 온라인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각 개교회는 자신만의 유튜브 채널과 다양한 SNS 소통 방식을 통해 예배를 비롯한 설교, 교육, 제자 훈련, 소그룹 모임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마셜 맥루한(Marshall McLuhan)의 유명한 말, “미디어가 메시지다”라는 말처럼 전달하는 매체가 진정한 몸의 만남과 육체의 지각과

습관,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지하고 실천적이며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물론 현대의 매체는 그 어느 때보다 감각적이고 자극적이며 인간의 오감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에 교회의 예배는 그에 대항하며 대안적 질서를 이뤄 나갈 수 있는 역량과 지혜, 탁월성 또한 요청되고 있다.

스미스는 텔로스 자체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통치, 그리고 그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고 포괄적이고 궁극적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며 세속 질서에 대항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거시적인 전망을 넘어서서 우리 삶 전반에 걸쳐 있는 실제적인 과업과 문제들에 대한 미시적인 텔로스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의 논의에서 예전적 인간론에 대한 모형을 수용하여, 기독교 공동체가 상상하고 지각하며 좋은 전망을 심어 주며,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습관과 지향성을 가진 모습으로 한 영혼을 제자로 세워줄 수 있는 지혜와 탁월함, 그리고 실천적 논의가 필요하다. 스미스의 아비투스적 기획과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는 이야기의 힘이 교회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동성과 일하심을 통해 함께 실천되고 적용될 때, 세속적 질서를 지양하고 하나님 나라와 통치와 질서를 지향하며 예배하는 참된 제자를 꿈꿀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일.(2016). **피에르 부르디외**.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Kim, D.L.(2016). *Pierre Bourdieu*. Seoul: CommunicationBooks.]
- 김명희 역.(2009). **성경은 드라마다**, Bartholomew, C.G.,&Goheen, M.W.(2014). *The Drama of Scripture*. 서울: IVP.
- [Kim, M.H.(2009). *The Drama of Scripture*. Seoul: IVP. Trans. Bartholomew, C.G.,&Goheen, M.W.(2014). Ada: Baker Academic.]
- 김용권 역.(2011). **파스칼적 명상**, Bourdieu, P.(1997). *Méditations pascaliennes*. 서울: 동문선.
 [Kim, W.K.(2011). *Méditations pascaliennes*. Seoul: Dongmunseon. Trans.Bourdieu, P.(1996). Paris: Le Seuil.]
- 김영화.(2020). **피에르 부르디외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Kim, Y.H.(2020). *Pierre Bourdie and Education*. Seoul: Kyoyookbook.]
- 김종훈 역.(1993). **어거스틴 삼위일체론**, Augustinus, A.(1990). *The Trinity*.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Kim, J.H.(1993). *The Trinity*. Seoul: ChristianDigestBooks. Trans. Augustinus, A.(1990). New York: New City Press.]
- 박삼종·배성민 역.(2009). **누가 포스트모더니즘을 두려워하는가?**, Smith, J.(2006). *Who's Afraid of Postmodernism?*. 서울: 살림.
 [Park,S.J.,Bae,S.M.(2009). *Who's Afraid of Postmodernism?*. Seoul: Sallim. Trans. Smith, J.(2006). Ada: Baker Academic.]
- 박세혁 역.(2016).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Smith,J.(2009). *Desiring the Kingdom*. 서울: IVP.
 [Park, S.H.(2016). *Desiring the Kingdom*. Seoul: IVP. Trans. Smith.J. (2009). Ada: Baker Academic.]

- 박세혁 역.(2018b).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라**, Smith,J.(2013). *Imagining the Kingdom*. Seoul: IVP.
- [Park, S.H.(2018b). *Imagining the Kingdom*. Seoul: IVP. Trans. Smith.J. (2013). Ada: Baker Academic.]
- 박세혁 역.(2018a). **습관이 영성이다**, Smith, J.(2016). *You Are What You Love: The Spiritual Power of Habit*. 서울: 비아토르.
- [Park, S.H.(2018a). *You Are What you Love: The Spiritual Power of Habit*. Seoul: Viator. Trans. Smith.J. (2016). Ada:Brazos Press.]
- 신미경 역.(2004). **사회학의 의제들**, Bourdieu, P.(1996). *Questions de sociologie*. 서울: 동문선.
- [Shin, M.K.(2004). *Questions de sociologie*. Seoul: Dongmunseon. Trans. Bourdieu, P.(1980). Paris: Minuit.]
- 이상길 역.(2015). **성찰적 사회학으로의 초대**, Bourdieu, P and Wacquant, L.(1992). *An Invitation to Reflexive Sociology*. 서울: 그린비.
- [Lee, S.K.(2015). *An Invitation to Reflexive Sociology*. Seoul: Greenbee. Trans. Bourdieu, P and Wacquant, L.(199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이상길·배세진 역.(2019). **사회학자와 역사학자**, Bourdieu, P.,&Chartier, R.(2010). *Le Sociologue et l'historien*. 서울: 킹콩북.
- [Lee, S.J·Bae, S.J.(2019). *Le Sociologue et l'historien*. Seoul: KingKongBook. Trans. Bourdieu, P.,& Chartier, R.(2010). Marseille: AGONE.
- 이상호 역.(2000). **재생산: 교육 체계 이론을 위한 요소들**, Bourdieu, P.(1970). *La reproduction: Elements pour une theorie du systeme d'enseignement*. 서울: 동문선.
- [Lee, S.H.(2000). *La reproduction: Elements pour une theorie du systeme d'enseignement*. Seoul: Dongmunseon. Trans. Bourdieu, P.(1970). Paris: Minuit.]
- 윤종석 역.(2011). **세계관은 이야기다**, Bartholomew, C.G.,&Goheen, M.W.(2008). *Living at the Crossroads*. 서울: IVP.
- [Yun, J.S.(2011). *Living at the Crossroads*. Seoul: IVP. Trans. Bartholomew, C.G.,&Goheen, M.W(2008). Ada: Baker Academic.]
- 정일준 역.(1997).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Bourdieu, P.(1982). *Language and Symbolic Power*. 서울: 새물결.
- [Jung, I.J.(1997). *Language and Symbolic Power*. Seoul: Saemulgyul. Trans. Bourdieu, P.(1982).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장호준 역.(2011). **칼빈주의와 사랑에 빠진 젊은이에게 보내는 편지**, Smith, J.(2010). *Letters to a Young Calvinist: Invita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서울: 새물결플러스.
- [Jang, H.J.(2011). *Letters to a Young Calvinist: Invita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Seoul: HolyWave. Trans. Smith, J.(2010). Ada:Brazos Press.]
- 장호준 역.(2018). **처음 읽는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칼 바르트까지**, Reeves, M.(2015). *Introducing Major Theologians: From The Apostolic Father to the Twentieth Century*. 서울: 복있는사람.
- [Jang, H.J.(2018). *Introducing Major Theologians: From The Apostolic Father to the Twentieth Century*. Seoul: HisMessage. Trans. Reeves, M.(2015). Downers Grove: IVP.]
- 최종철 역.(2006).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Bourdieu, P.(1979). *La distinction: Critique sociable du judgement*. 서울: 새물결.
- [Choi, J.C.(2006). *La distinction: Critique sociable du judgement*. Seoul: Saemulgyul. Trans. Bourdieu, P.(1979). Paris: Minuit.]
- 최주훈 역.(2017). **마르틴 루터 대교리문답**, Martin Luther.(2016). *Luther's Large Catechism*. 서울:

복있는 사람.

[Choi, J.H.(2017). *Luther's Large Catechism*. Seoul: HisMessages. Trans. Martin Luther.(2016). Minneapolis: NEXX.]

하태환 역.(1999). **예술의 규칙**, Bourdieu, P.(1996). *The Rules of Arts*. 서울: 동문선.

[Ha, T.H.(1999). *The Rules of Arts*. Seoul: Dongmunseon. Trans. Bourdieu, P.(1996). Cambridge: Polity Press.]

홍병룡 역.(2007). **그리스도와 문화**, Niebuhr, H. Richard.(1951). *Christ and Culture*. 서울: IVP.

[Hong, B.R.(2007). *Christ and Culture*. Seoul: IVP. Trans. Niebuhr, H. R.(1951). New York: Haper&Row.]

홍병룡 역.(2010). **그리스도인의 미덕**, Wright, N.T.(2010). *After You Believe: Why Christian Character Matters*. 서울: 포이에마.

[Hong, B.Y.(2010). *After You Believe: Why Christian Character Matters*. Seoul: Poimea. Trans. Wright, N.T.(2010). San Francisco: HaperOne.]

홍성민.(2004). **피에르 부르디외와 한국사회**. 서울: 살림.

[Hong, S.M.(2004). *Pierre Bourdieu and Korean Society*. Seoul: Sallim.]

황성철.(2002). **칼빈의 교육목회**. 서울: 이레서원.

[Hwang, S.C.(2002). *Calvin's Educational Ministry*. Seoul: Jirepub.]

Berkouwer, G.C. (1962). *Man: The Image of God*. Grand Rapids: Eerdmans.

Bourdieu, P.(200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Boulton, M.(2011). *Life in God: John Calvin, Practical Formation, and the Future of Protestant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Calvin, J.(1995).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Dykstra, C.(2005). *Growing in the Life of Faith: Education and Christian Practice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George, T.(Ed.)(1990). *John Calvin and the Church: A Prism of Reform*.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Hauerwas, S.(2003). *The Hauerwas Reader*. eds. Berkman, J.,&Cartwright, M.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MacArthur, J.(2017). *Biblical Doctrine: A Systematic Summary of Bible Truth*. Wheaton: Crossway.

MacIntyre, A.(1984).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Maton, K.,&Grenfell,M.(2008). *Pierre Bourdieu: Key Concepts*. London: Acumen.

McKim, D.K.(1998). *Major Themes in the Reformed Tradition*.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Miller, V.J.(2004). *Consuming Religion: Christian Faith and Practice in a Consumer Culture*. New York: Continuum.

Samples, K.R.(2007). *A World of Difference: Putting Christian Truth—Claims to the World—View Test*. Grand Rapids: Baker Books.

Sproul, R.C.(1998). *Essential Truths of the Christian Faith*. Carol Stream: Tyndale House.

Wolterstorff, N.(2002). *Education for Life: Reflections on Christian Teaching and Learning*. Ada: Baker Academic.

Taylor, C.(2007). *A Secular Ag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뉴노멀 시대, 제임스 스미스의 아비투스를 통한 몸의 욕망과 형성 고찰 및 평가

In the New Normal Era, James K.A. Smith's Study and Evaluation of the Body's Desire and Formation through Habitus

오경환(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논문 초록

지난 십여 년 간 가장 영향력 있으며 대중적인 철학자이자 교육실천가이며 신학자로 평가받는 개혁주의자 제임스 스미스는 근대 이후의 주창된 인간관의 모순을 성경적으로 날카롭게 지적하며 인간은 욕망하며 예배하는 동물이라고 주장한다. 스미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을 계승하여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이며, 그것이 곧 우리의 존재와 궁극적 정체성이라는 인간론을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논리 있고 일관성 있게 논증한다. 특별히 스미스는 부르디외의 아비투스(Habitus) 개념을 소개하며 기독교 제자도의 형성은 기독교 세계관의 습득이 아닌 기독교적 아비투스의 습득이 필요하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아비투스란 우리의 몸이 우리 삶의 내러티브를 통해 사회적 경험을 습득하며 얻게 되는 일종의 인식 틀로써, 실천 감각과 실천 논리라는 체험적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 스미스는 몸의 앎과 습관의 형성을 통해 인간은 지각하며 상상하며 이야기하는 동물로서 인간론을 이해하며, 하나님 나라를 욕망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몸과 삶의 방식에 대한 그 몸의 전망으로 통합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좋은 삶(텔로스)을 꿈꾸며 욕망하고 실천한다는 것이다. 결국 스미스의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어떠한 지식의 축적과 앎을 넘어서서 마땅히 사랑하고 욕망해야 하는 바에 대한 것이며,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와 존재와 인식을 재구성하는 아비투스적 사고와 실천이 요구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스미스의 예전적 인간론에 대해 밝히고 분석하며 비평 및 평가함과 동시에 그가 말하는 아비투스의 개념이 어떻게 기독교 교육과 신학 내에 적용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지, 또한 어떤 면에서 그의 이론과 사상의 독특성을 가지며 고찰할 지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증한다.

주제어 : 아비투스, 예전적 인간, 기독교 세계관, 제임스 스미스, 습관 형성, 욕망 형성, 제자도

논 찬 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뉴노멀시대, 제임스 스미스의 아비투스론을 통한 몸의 욕망과 형성 고찰 및 평가	발표자	오경환
		논찬자 (소속)	김보경 (전주대학교)

본 논문은 기독교세계관이 그간 지나치게 학문적이고 분석적 형태를 유지하는 바람에 인간이 하나님과 달리 피와 살로 된 육체를 가지고 욕망과 습관의 힘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이 간과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아비투스론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 제임스 스미스의 이론을 고찰하고 평가하였다. 특별히 비대면 예배가 뉴노멀이 된 지금, 개인 미디어를 통해 드리는 예배의 새로운 형태와 방식이 기독교인들에게 미칠 영향력에 대한 충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때 제임스 스미스가 그리스도인들의 아비투스론이 부르디외의 세속적 아비투스론과 달리 성화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기 위해 필수 또는 핵심인 예배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 적절한 논문이라고 생각한다.

그간 기독교세계관은 너무 높은 곳에 존재하였다. 말씀과 육체의 실천 중간쯤에서 가교역할을 해야 하나, 기독교세계관은 학문적으로 표현된 말씀과 교리의 또 다른 버전처럼 느껴진다. 논찬자도 교회에서 습관형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을 실천으로 바로 도출하기 어려워 기독교세계관을 사용하였으나, 이 또한 성도의 삶으로 구체적 실천을 유도하기에 역부족임을 깨닫고 마지막에 주제와 관련된 교양서적의 지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즉 말씀 → 기독교세계관 → 교양지식 → 실천 도출의 구조로 설계하였다.

특히 유튜브 플랫폼 등을 통한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신자들은 자신이 들은 말씀을 몸으로 소화해내기도 전에 또 다른 말씀을 스트리밍 받는다. 예배의 공간과 삶의 공간이 분리되었던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말씀을 실천과 몸의 습관으로 연결하는 일에 민감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신자는 먹고, 자고, 쉬는 일상의 공간인 거실, 책상, 자동차 안에서 예전한다. 앞으로 성도의 일상을 배제한 추상적이고 관념론적 설교는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제임스 스미스의 예전적 인간은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오감, 상상력, 감성, 몸의 문제를 포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도 제임스 스미스의 예전이 이전의 예배의 모형과 큰 차이점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배당에 드리는 친밀일률적인 예배가 아니라 직장, 안방, 식당, 길거리, 카페, 서점, TV나 스마트폰 앞에서 나의 오감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드리는 예전은 교리적 관점에서, 아비투스론의 관점에서 최소한 어떠한 필수요소가 포함되어야 예전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제시해 준다면 더욱 가치 있는 논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학을 잘하기 위한 방법은 수학을 어린 시절부터 매일 공부하는 것이다. 반복적 행위는 습관으로 형성되고 습관은 정체성이 된다. 수학을 공부한 횟수가 누적되면 ‘나는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그 정체성에 맞게 행동하게 된다. 일상의 반복적 행위를 예전으로 바꾸어 그리스도인의 아비투스를 형성해주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면 영과 육의 이분법으로 고통 받으며 교회를 떠나는 다음세대를 돕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자가 보다 실천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후속하기를 기대한다.